



KIA 김선빈, 제주남초 야구부에 2000만원 기부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
빈(35)이 제주남초등학교 야구부에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뉴스스

'당구 천재' 김행직, 진도군과 계약

1년 계약…“진도 널리 알리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



월드컵 챔피언 출신인 '당구 천재' 김행직 선수가 진도군 소속으로 활동한다.

진도군은 최근 김행직 선수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MLB서울시리즈 일정

문동주(한화 이글스),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등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거와 맞대결을 벌인다.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의 스페셜 게임 일정이 확정됐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주관 중계권자인 쿠팡플레이는 24일 스페셜 게임과 입장권 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국가대표팀인 팀 코리아를 비롯해 키움, LG 트윈스,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SD)가

참가하는 스페셜 게임은 17~18일 이를 동안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총 4경기가 열린다.

3월17일 오후 12시에 개최되는 키움과 다저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7시에는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가 맞붙는다. 3월18일 오후 12시 LG와 샌디에이고의 경기가 열리고, 오후 7시 팀 코리아와 다저스가 격돌한다. 스페셜 게임 4경기가 끝난 뒤 3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MLB 개막 2연전이 열린다.

입장권 예매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고, 총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판매가 진행된다.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기동 중흥3차 옆)

NAVER 삼형제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좋아요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7명 경고' 변수

손흥민·김민재 '동시 결장' 우려까지

해당 선수들 경고 받으면 다음 경기 출전 못 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요르단과 2차전에서 힘겹게 2-2로 비긴 한국은 1승1무(승점 4)로 요르단(승점 4)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2)은 골득실에서 요르단(+4)에 뒤져 순위에서 밀린다.

16강 진출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일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 진출을 다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주축 선수들의 경고가 우승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변수를 차지할 바 있다.

또 작년에는 월드 3구선 그랑프리 준우승, 라스베이거스 3구선 당구 월드컵 준우승을 달성했다.

김행직 선수는 "진도군 소속 선수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진도군을 널리 알리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대부분이 클린스만 체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자원들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 16강전, 8강전 중 한 경기에서라도 경고를 받으면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전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고는 8강전 이후에 초기화된다.

가장 큰 이슈은 요르단과 치른 2차전이다.

만약 요르단을 상대로 일찌감치 승리를 잡아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했다면 이 경기에서 일부러 경고를 받는 '카드 세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조 최약체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에 결장하면서 카드를 초기화하고, 16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체력 관리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르단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너먼트부터는 녹아웃 방식으로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경고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뉴스스

백승호, 英 2부 버밍엄시티 입단…3년 만의 유럽 복귀

이르면 이번 주말 영국 출국…2년6개월 계약 전망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 미드필더 백승호.

영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호의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 미드필

단한다.

백승호 측은 24일 "버밍엄시티 이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 서류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말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년6개월이 유력하다.

이로써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와 계약이 끝난 백승호는 3년 만에 유럽 무대로 복귀하게 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헌택을 받은 백승호는 전북과 계약 만료 후 유럽 진출을 타진했으며, 고심 끝에 버밍엄시티를 차기 행선지로 결정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지노나FC(스페인)를 거쳐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다클슈타트에서 뛰다 2021년 3월 전북에 입단해 K리그1 무대에서 활약했다.

백승호는 전북에서 3시즌 동안 주전 미드필더로 82경기를 뛰며 9골 6도움을 올렸다.

전북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어 본선 무대를 뛰었고, 지난해엔 항저우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로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백승호의 버밍엄시티 이적은 토니 모브레이 감독의 러브콜로 이뤄졌다.

모브레이 감독은 잉글랜드 2부리 그 선덜랜드 사령탑이던 지난 시즌 백승호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면서 백승호 영입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모브레이 감독이 지난 8월 경질된 웨인 루니 감독 대신 버밍엄시티 지휘봉을 잡으면서 백승호 영입이 다시 주진됐다.

백승호 측은 "백승호가 모브레이 감독과 화상 미팅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875년 창단한 버밍엄시티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8승8무12패(승점 32)를 기록, 24개 팀 가운데 20위에 처져 있다. /뉴스스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